

동일 Focus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와
통일외교



동일 Focu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고 밝혔으며, 또한 양 정상은 남북한 관계와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을 포함하는 역내 국가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중심으로 향후 한·중 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통일외교 추진방안을 살펴보고, 이번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좌담회는 지난 7월 10일 민주평통사무처 회의실에서 ‘한·중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정세와 통일외교’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좌담회에서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김재천 서강대 교수, 신범식 서울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한석희 연세대 교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의 역할이 새로운 동북아 질서 형성에 영향 줄 수 있어

우리 주도로 남북관계 끌어갈 때 주변국 관계 더 좋아질 것

▣ 김용호 인하대 교수(사회):

바쁘신데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7월 3일과 4일 서울을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특히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가기 전에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시 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

동일Focus

▶일시

2014년 7월 10일(목) 15:00~17:00

▶장소

민주평통사무처 회의실

▶좌담

- 김용호 인하대 교수(사회)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김재천 서강대 교수
- 신범식 서울대 교수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한석희 연세대 교수

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희 연세대 교수** :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한이 동북아시아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될 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해서 한국을 상대로 상당한 매력공세(charm offensive)를 펼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력공세의 대상은 한·일 관계를 좀 더 벌리고 또 한·미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를 굉장히 밀착시키려는 그런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미·중 관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의 매력공세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확대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한국이 중·미·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지금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전되는 상황을 보면서, 특히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의 변화를



한석희 연세대 교수



김용호 인하대 교수

봐가면서 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과 우호관계 심화 확대, 한·미 관계 유지 노력 보여

▣ **김용호(사회)** : 일본에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일본에서는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좀 더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욱 더 한국이 중국에 경사(傾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런 문제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국이 절제된 행동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을 의식하고, 한·일 관계를 좀 더 잘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 일본 매스컴들의 기본적인 평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한국이 일본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부터 일본의 기류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역시 한국이 역사문제에 집착을 해서 국제관계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현상유지를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한 것을 100%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게 된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제도 많이 남겨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관계와 미·중 사이의 국제정치가 이제부터 좀 더 어려운 시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생각하는 원칙적인 외교, 특히 한국의 전략적 외교가 여러 의미에서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김용호(사회)** : 북한의 경우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심정이 상당히 착잡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요?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일단 북한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졌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방사포를 쏘면서 군사적인 무력시위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월 30일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기 직전에 북한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특별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남북간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기 위한 회담을 갖자는 평화공세를 펼쳤습니다.

북한이 한편으로는 무력시위를 하고 한편으로는 평화공세를 했다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것은 시진핑의 방한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문제, 남북 간 군사적 대치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중 간에는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핵문제에 대한 한·중 정상 의견의 일치 수준을 작년보다 훨씬 더 높게 끌어왔다는 면에서 북한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중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 것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원하는 수준 정도까지 북한에 대해서 거리두기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북·중 관계에 일정한 거리 보여, 거리두기 나선 것은 아닐 것

또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실현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거에 자기들이 쓰던 단어를 그대로 고집을 했고, 핵무기 개발을 당연히 반대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핵무기 개발이라는 것을 ‘북한핵’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이나 ‘한국의 핵우산’까지 다 같이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다지

커다란 의미를 가진 전략적 입장의 변화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석으로는 한국에 먼저 왔지만, 부주석으로서는 지난 2008년 6월에 북한에 먼저 갔습니다. 그 때 북한을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시진핑 주석이 과연 한국과 북한 중에서 어느 한 쪽으로 기울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남겨진 과제’ 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

시진핑, 한국에 먼저 올 수 있는 여건 성숙됐기 때문

▣ **한석희** :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북한보다 우리 한국을 먼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갈만한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한국에 먼저 올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먼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7월 27일이 북한의 6.25전쟁 전승기념일입니다. 그 때는 중국에서 고위급 인사를 북한에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때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또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이 서울에 온 것을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옮겨졌다는 판단은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범식 서울대 교수

▣ **김용호(사회)** : 한·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러시아의 관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 **신범식 서울대 교수** : 러시아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공식적인 코멘트를 하거나 그렇게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한·중 관계가 그들의 이해관계에 불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전인 지난 5월 20일과 21일 중국 상하이에서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가 개최되었습니다. CICA는 중앙아시아국가인 카자흐스탄이 1992년 발의하였고,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중동국가들, 그리고 우리 한국도 참여하고 있고 주로 안보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아시아 국가 간 협력과 신뢰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CICA(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회의(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 인도, 태국, 몽골, 이집트, 카자흐스탄 등 총 2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로 안보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며 아시아 국가 간 협력과 신뢰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터키가 의장국가를 맡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중국이 맡고 있다. 제4차 회의가 지난 5월 20일과 21일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월 3일 오후 청와대 세종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확대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5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의 안전은 아시아인이 지켜야 한다’는 아시아 신안보관 구상을 밝혔고,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중국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에서 지지를 하면서도 견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양국의 관계 강화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적이거나 대립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상황 전개만 되지 않다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용호(사회)** : 김재천 교수님께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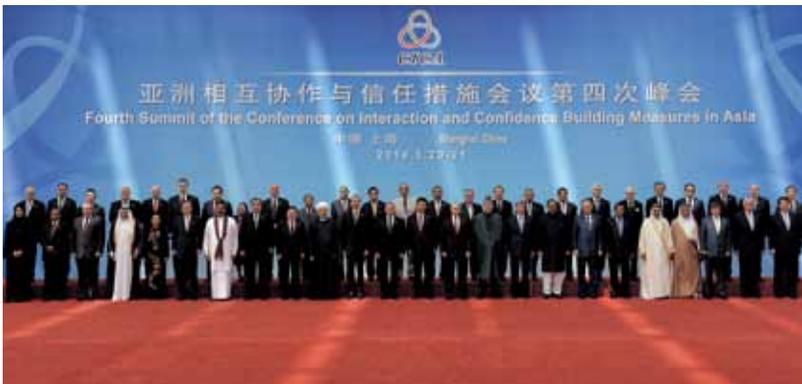
▣ **김재천 서강대 교수** :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이제는 경제분야 뿐 아니라 정치, 안보 분야에서 선별적인 이슈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중 관계의 발전이 한·미·일 공조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한·미·일 공조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 이라는 입장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부상이 워낙 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부상에 편승(bandwagon)하기보다는 미국 중심으로 균형(balancing)을 이루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구도입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에 안보이익을 올인(all in)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중국과의 관계를 훨씬 더 다면적, 다층적으로 심화해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의 안보이익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코너스톤(cornerstone), 즉 주춧돌이 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중국이 이제는 대국으로서 이에 걸맞는 외교정책을 취하려고 하고,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대미 외교 완충지대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한·미·일과 북·중·러의 해양과 대륙 세력의 대결 구도는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가 지난 5월 20일과 21일 중국 상하이 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물론 냉전 당시의 구도보다는 다변적이고 다층적이지만 말이죠.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고 해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호(사회)** : 미국의 경우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의 참여 보류를 요청한다든지, 또는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제(MD, Missile Defense)에 참여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미군사동맹이 굳건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한국이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너무 중국 쪽에 기울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석희** : 그런 시각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 동맹국가인데 일본의 행동과 한국의 행동이 완전히 차별되거나 거기에서 오는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것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대한 미국의 태도입니다. 설명하자면, 중국은 2008년도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IMF(국제통화기금)와 World Bank(세계은행)에서 자기들의 지분을 높이고 좀 더 높은 지위를 가져가려고 굉장히 노력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체제 속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와 World bank를 대신해서 자기들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국제기구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이 브

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영문 첫 글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BRICS를 통해서 BRICS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IMF를 대신하는 체제로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서 볼 때 용납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현재 AIIB에 중동국가들과 동남아국가들이 가입해 있는데 한국이 이런 AIIB에 들어간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참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AIIB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제은행 중에서 미국의 지분이 낮은 은행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제은행이 처음 설립될 때 미국이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트리플A’ (Aaa) 등급을 주면서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서 ‘트리플A’ 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बैं킹역할을 한다는 것도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참여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국제금융기구이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주석이 설립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역할을 대체하겠다는 중국의 의도가 있다. AIIB는 아시아지역의 도로·철도·교량 등 인프라 투자, 성장 지원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미, 한·중 관계 긴밀할 때 한국의 전략적 가치 높아져

▣ 김재천 :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한·중 간의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중 관계가 전통적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정냉경열(政冷經熱)의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 역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비전통 안보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단지 중국이 이제는 중국주도의 국제질서 창출, 또는 아시아 질서 창출 노력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인데, 이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중국이 두 가지의 과제를 한국에 던져준 셈인데, 첫째는 AIIB에 참여하라는 제의이고, 둘째는 CICA를 아시아 집단안보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에 한국이 동참했으면 한다는 제의입니다.

한 교수님 말씀대로 AIIB와 CICA의 참여는 너무 조급히 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측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볼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실 AIIB는 중국이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 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단지 중국이 이러한 구상을 얼마나 미국측과 상의했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제안을 중국이 미국과 상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CICA를 아시아 안보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시키자는 시진핑 주석의 제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중국은 CICA에서 우선 논의할 수 있는 안보이슈를 비전통 안보분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전통 안보분야의 논의를 우선시 하지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수렴시켜 논의해 볼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이러한 한·중의 공동

노력에 미국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국에게 미국이 역내의 이해당사자 국가임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신 실�크로드 구상도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분명 일맥상통하고 있고, 따라서 협의하여 같이 추진한다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해 지는 것이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으로, 즉 제로섬(zero sum)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긴밀할 때 오히려 미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게도 모두 필요한 그러한 국가이고, 그리고 그러한 가치가 있을 때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도 넓어질 것입니다.

▣ **김용호(사회)** : 최근 정세를 살펴보면 북·일 관계라든지 북·중 관계라든지, 또한 남북관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다. (청와대)

습니다. 그런 연속선상에서 한반도 주변정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 **진창수** : 우선 북·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일 관계가 급진전됐을 때가 2002년 고이즈미 수상 때였죠. 그 당시의 국제정치적 환경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2002년 당시는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고,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죠... 북한의 개방과 국제화를 요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과 북한의 관계 진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서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투자하기를 바라던 시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쁜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가 나쁘다 보니 북한문제에 대해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일 간에 안보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일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제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당시는 대북 제재의 국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핵실험을 세 번이나 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국면 속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기 보다는 독자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독자 외교 속에서 진행되는 북·일 교섭이 우리와 전혀 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 북·일 교섭을 이번 한·중 정상회담과 연계시켜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베 정권이 독자 외교 차원의 북·일 교섭을 통해 중·일 관계나 한·일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 외교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대응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독자외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한국의 대응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 등 일본의 독자외교 관심 갖고 지켜보아야

▣ **김근식** :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동북아 정세는 과거의 질서와는 다소 차별화되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동북아 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국가가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을 끌어들이 수밖에 없는 내부 상황이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대외정책의 목표도 있지만 최근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5일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 미 대사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보면 내부적으로도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 도움없이 버텨낼 여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미국의 연방예산 삭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조치입니다. 국방비 삭감이 10년에 5,000억 달러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보충하겠습니까? 일본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이 중국이나 한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도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미국의 입장에서 각자도생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 역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언론에 비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실제 주인공은 시진핑 주석이었습니다. 미국에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국이 중국과 더 가까워질 가능성을 시사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중국이 과거에 혈맹이라고 했던 북한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까지 한국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중국이 한국을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분리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각자도생의 외교를 펼치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북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한·일 관계가 아주 나쁜 상황이니까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런 관계가 단순히 한·미 관계와 한·중 사이에서의 복합적인 균형점 찾기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 이후에 이제는 각국이 국가 이익을 지켜내고 최대화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카드를 찾아내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를 비롯하여 미·일 관계도 그렇고, 북·일 관계나 북·러

관계도 각자도생의 자기 이익 찾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각자도생’의 길에서 어떤 점을 잘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지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국의 이익 지키고 최대화하려는 ‘각자도생’의 상황

▣ **한석희** : 북·중 관계에서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과 거리를 두면서 한국에 가까이 가는 듯 하다고 평가하시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약간의 눈속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 관계가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김정은에게도 있고 중국에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보다 서울에 먼저 왔다는 것에 굉장히 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4월 11일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북·중 관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북·중 관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중국의 한반도정책이 북한 위주에서 한국 위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북한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한국으로의 영향력을 팽창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완충지대의 확대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창수** : 저도 김근식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각자가 제 살림을 차리기 위해 각개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형별로 그룹핑(Grouping)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의 정세를 판단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여차하면 타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는 독자노선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일본은 미국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부담

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담은 점차적으로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되든지 인도가 되든지 다른 선택을 찾는다고 해도 그만큼 비용이 들고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동북아 정세는 그동안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각국이 제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용호(사회)** :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라는 구조적 제약 안에서 각개 각전을 하는 것이죠. 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합적·입체적 편 모으기 경쟁 시작의 신호탄

▣ **신범식** : 저는 북·일 관계의 접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최근 10여 년 동안 미국과 같이 움직이는 외교를 벌여 왔습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청와대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

미·중이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완전히 압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동북아 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니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신호를 보여주면, 그 뒤를 쫓아서 북한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쾌한 상황이 되었지만, 이러한 일본의 독자적인 움직임은 어떤 의미에서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북아 질서에 있어서의 새로운 구상, 새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북아 질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에 중국이 도전하는 기본구도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미·중이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완전히 압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동북아 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평면적인 한·미·일 관계와 미·중·러 관계 속에서의 전통적인 자산도 관리를 해야 하겠지만, 이제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자산들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접근해 가고, 중국은 한국을 좀 더 끌어당기고 러시아를 협력의 파트너로 동북아에 끌어들이고, 미국도 전통적인 한·미·일 관계 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신경을 쓰게 되는 변화의 가능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미·북 관계에 있어서는 핵문제라는 구조적인 사안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 확실하게 예단할 수 없지만 북·일 관계의 접근이 동북아 질서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형태의 편 끌어 모으기 경쟁이 시작되는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근식** : 예, 그렇습니다. 북·일 간의 접촉이 신호탄이었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그 후속타가 되었습니다. 한·중 관계는 미국과 일본에게 그렇게 보였을 것이고, 북·일 관계는 한국이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복잡한 입체적 변형의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각자도생의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남북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라는 카드는 일본이나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지렛대인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남북관계라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히든카드가 아직 발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각자도생의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가 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 **김용호(사회)** :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관리나 학자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대북 군사경제 제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대북 제재를 통해서 6자회담에 북한을 끌어들이고 북핵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가 확고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이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대북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게 되면 북한이 출구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 또한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6자회담 등 어떤 방식으로든지 북한핵문제를 관리하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북한핵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이고 북한에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던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김재천** : 중국이 북한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대국으로서 대국의 어젠다가 발생했다. 너희들도 그러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 마냥 너희들의 행동을 감싸 안을 수는 없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이고 북한에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던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국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유연하고 국제 규범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 하지만 친중적인 정권이 북한을 지배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핵이라든지 여타 대량살상무기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를 원하고 그럴 수 있도록 유도하려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존립에 위협이 가해진다고거나, 불안정성 요인이 극대화 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을 몰아 붙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반대한다는 성명서의 문건은 분명히 북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정책과 전술핵 배치 등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이기도 합니다. 북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했다는 점에서 용어와 표현 선택에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등 핵 운반체와 여타 WMD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핵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차원에서, 또는 지역 차원에서 반대한다고 언급해볼 만도

했는데....

어쨌든 중국이 우회적으로나마 북한의 핵에 대한 반대를 재천명한 것은 분명한 만큼 6자회담 등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6자회담이 북한의 시간끌기와 경제이득 갈취의 수단으로 전략해서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다리는 정책, 군사적 대비의 확충만으로 북한핵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위험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킬체인(Kill Chain)이니 KAMD 등의 확충으로 북한핵을 억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적극적인 관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핵 외교가 아직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보다 평화안정에 더 큰 비중 두게될 것

▣ **한석희** : 중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북한핵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6자회담을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중국 측에서도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6자회담의 틀 속에 북한을 묶어 놓자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요즘 들어서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두 개의 중심축 중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보다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 그것 또한 레토릭(rhetoric)일 뿐이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앞으로 북한의 일탈적 행동을 지지하지 않고 좀 더 긍정적이고 안정지향적인 방향으로 북한을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 또한 원만한 남북관계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호(사회)** : 북한핵문제 외에도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보충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창수** :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의도가 어떤 것이든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과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자체가 우리 외교에서의 성과라고 봅니다. 또한, 한·중 관계를 보는 국내적 관점과 국제적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가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를 고려하여 균형외교를 펼치려고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시



지난 7월 1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의 전술로켓 발사훈련 모습

각에서 이런 우리의 노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첫째 날 기자회견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해 했지만 둘째 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미국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요.

그렇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관계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더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고요.

중국의 더 많은 양보 얻기 위해 한·미 관계의 돈독함 과시해야

▣ **김근식** : 제가 보기에 이번 정상회담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사협정 문제라든가 대만에 관한 언급이라든가 서로 간에 많은 것을 교환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까워진 한·중 관계를 체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항일승전 70주년 행사 공동 개최와 관련하여 즉답을 피함으로써 아직 우리에게 미국과 일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중국의 매력공세를 받아들이고 더 많은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의 돈독함을 과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이 우리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더욱 더 접근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의 돈독함을 과시해야 중국이 우리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더욱 더 접근하려고 할 것”

▣ **김재천** : 원론적인 차원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일에 대한 중국의 공개적 지지를 유도해 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 통일의 명운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입니다.

통일이 동북아의 안보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급격한 세력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논리를 개발하여 주변국, 특히 미국과 중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일은 동북아를 떠나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사적 이벤트라는 논리 역시 개발하여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 **김용호(사회)** : 또한 한·중 FTA 연내 타결이라든지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등은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 **한석희** :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었죠.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북한 비핵화라든가 통일문제에 관해서 중국의 전향적인 평가를 받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고, 결국 경제문제 등 다른 분야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얻은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략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하였고, 국방분야에 있어서의 고위급 인사 교류와 직통전화 개설, 사증면제 범위 확대와 영사협정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큰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한·중 청년지도자포럼이라든지 100명의 양국 청년지도자 상호 초청에 관한 사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FTA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점은 향후 FTA협상에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원-위안화

중국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한국은 역내 이해 당사자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일외교를 해야 합니다.

직거래 시장 개설, 한국 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한·중 해양 경계획정 협상 가동 등의 경제협력관계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 **김용호(사회)** :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자주적인 합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근식** : 그것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입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서, 특히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전환, 전략변화를 지금 수준에서 기대하는 것은 빠르다는 것이죠.

▣ **김재천**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한국은 역내 이해 당사자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일외교를 해야 합니다. 통일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의 기틀이 될 수 있다는 논리, 힘의 균형을 단번에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아닐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일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투여되어야 합니다. 통일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염두에 두어야겠지만, 언젠가는 우리와 같이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북한 지역과 주민에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변국에게 통일하겠다고 도와달라고 설득하고 다녀도 통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외교적 설득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 아직은 시기상조

▣ **신범식** :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실익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만 보면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이고,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로 만들어 가고 싶어 했는데 우리 측에서 적당한 선에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고민이 반영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 경제통상협력포럼에서 한·중경제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청와대>

된 것이겠죠.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일본의 역사문제에 있어 한국이 중국과 함께하고, 동북아에 있어서 한·미·일로 연결되어지는 견고한 고리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한국이 방어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양국이 비슷하게 주고 받은 것 같습니다.

▣ 진창수 : 이번 정상회담은 현상유지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다소 발전된 현상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현상유지를 어느 쪽으로 더 발전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한 교수님 말씀처럼 한국은 미국 쪽으로 어느 정도 더 치우칠 것인지이고, 중국은 한국을 얼마나 좀 더 완충지대로 이끌어 낼 것인지입니다. 아직도 많은 고개를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김용호(사회) : 저는 한·중 정상회담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현상유지라는 평가보다는 한·중 관계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어떨까요? 또 하나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양국 정상들 간에 논의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일본을 너무 의식하는 것은 아닌지요?

▣ 진창수 :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한·중 간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동일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합의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의 발표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해 밝혔는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위안부 문제는 세계 보편의 인권문제이고,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하여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접근하는 한국과 중국의 논리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식민지 미화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반성, 사죄를 하지 않는 일본을 지적하고 있고, 중국은 전범을 추방하고 전쟁을 미화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바탕으로 본다면,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와 우경화 문제 등에 관해 공동으로 대응할 때 똑같은 실익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중국과의 협력으로 일본을 고립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실익을 가져올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문제인데, 이것이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 제고의 문제입니다. 그들만의 해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입장과 의견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있어 일본이 투명성을 담보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역할을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은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김재천** : 일본의 대북 접근은 왕따 당하는 두 국가가 뭔가 외교적 자구책을 찾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 공조

의 큰 틀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제재는 일본만의 제재입니다. 국제제재를 일본이 풀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공조’를 일본이 깨지 않는 이상 큰 판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우려는 되지만 일본이라는 자주국가가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주권이나 안보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왜곡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국보다는 세계의 양심세력의 호응과 지지를 유도해 내야 일본에게 훨씬 더 압박이 됩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역사왜곡 등의 부분에서는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만류해야 합니다. 한국이 한·미·일 공조에서 떨어져 갈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집단적 자위권(集團的 自衛權)

집단적 자위권의 사전적 의미는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자국과 밀접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실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본이 1945년 8월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한 이후 만들어진 새 헌법 제9조에서 ‘일본이 전쟁을 무력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삼는 것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며, 군대의 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1972년 당시 다나카 내각은 ‘일본의 자위 조처는...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것을 아베 정권은 지난 7월 1일 ‘필요 최소한의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상 허용된다’고 헌법 해석을 바꾸었다. 이런 해석으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와 발언권의 강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미 동맹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중국이 타깃(target)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끌어들이기 위해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역사문제에 공동 대응하되 확고한 원칙 있어야 할 것

■ **한석희** : 중국이 이번에 다소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판단하기에 한·일 관계가 당분간은 좋아지기 힘들다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북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국으로 자기들의 영향력을 넓혀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한·미 동맹이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중국이 타깃(target)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끌어들이기 위해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우리가 얻은 것 보다 중국에 준 것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번에 많은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 중에서 대부분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둘째 날 발표된 일본에 대해 다소 강경하게 공동으로 대응한 것 정도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나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종의 레토릭(rhetoric) 같은 것도 필요하고 어떤 외교 전략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호(사회)** : 외교전략 이라든가 후속조치를 말씀하시니까 질문을 던진다면, 한·중 관계가 향후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재천** :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고 천명한 상황이고,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원론적으로 지지한다고도 했습니다. 드레스덴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에 관해서도 원론적인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조금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이 그냥 원칙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김원옥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들이 지난 7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 참가해 "일본의 '집단지위권' 해석 변경이 군국주의 부활을 선언한 것"이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가동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은 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구동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중 관계의 신뢰가 남북관계의 신뢰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발전된 한·중 관계가 남북관계로 스�필오버(spillover)가 발생하려면, 이제는 한국이 조금은 더 상황을 앞서서 주도할 수 있는 적극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중간 신뢰가 남·북간 신뢰로 이어지지 않을 것

▣ **진창수** : 동북아 관련국들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면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좀 더 민주적인 국가로 변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상국가, 모범국가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중국의 급부상을 경계하거나 대립하는 구도가 약화될 것입니다. 현재는 이런 부분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하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에 모범국가로 등장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우려는 적어질 것이고 오히려 중국과 함께 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이런 모범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중 관계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현재도 6자회담을 통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동북아 안보질서를 위해서, 동아시아의 집단안보라는 개념 속에서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 **한석희** : 한·중 관계의 신뢰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의 신뢰회복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룩한 한·중 관계의 신뢰 구축 및 심화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명확하게 제시해야

▣ **신범식** : 한·중 관계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동북아의 틀 전체에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의 균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 측면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나머지 한쪽을 배제하는 형태의 지역주의가 아니라 개방적인 형태의 지역주의 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해양과 대륙이 공존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주의 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동북아에서 이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일본에 대해서 일본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가진 불만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또한 일본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에 관한 지속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용호(사회)** : 그런데 김 교수님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이 잘 되어서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나아지면 한·중 관계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는 어디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근식** : 먼저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이해관계를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대북 전략이죠. 북한에 대한 전략적 공유를 얼마만큼 확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전략적 공감대가 예전보다는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모자라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 전략적 공유 이런 것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한·중 관계에 있어 마지막에 가서 봉착하게 될 사안이 될 것입니다.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통일' 을 주제로 민주평통이 개최한 한·일 평화통일포럼이 지난 3월 27일 일본 도쿄 리츠 칼튼호텔에서 진행됐다.

나중에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 중국이 한·중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한·미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중국은 한·미 동맹을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즉, 한국과 중국이 각각 대북 전략적 공감대와 한·미 동맹이라는 이해관계와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서로 간에 타협 가능한 상황까지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는지가 결국 한·중 관계의 본질적인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공유와 한·미 동맹 문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이 잘 되어서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있고, 우리가 남북 관계를 주도하게 되면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 문제에 관한 공감대가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좋지 않고 긴장이 고조될 때에는 한·중 관계에서도 북한문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갈등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어젠다로 중국과 우리가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남북관계를 얼마만큼 우리 주도로 순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가 한·중 관계에 있어서 한·미 동맹과 북·중 관계라는 복잡한 이슈를 그나마 우리가 원하는 구도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key)가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 진전 위해 ‘북한의 국제화’ 유도 필요해

▣ **진창수** : 말씀처럼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이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남북관계의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것이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이 공통의 문제에 대해 기능적인 접근을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북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을 국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가지고 북한을 지속적으로 밖으로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남북관계에 있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양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야를 넓혀서 남북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범식** : 예, 김 교수님 말씀처럼 남북관계를 잘 풀어서 주변국관계를 잘 관리하고 균형을 맞추어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남북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지난 7월 1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우리 정부가 대범하게 북한이 요구하는 정치군사적 어젠다에 대한 회담에 응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회담에 북한이 응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제의를 맞바꾸는 그런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주변국 관계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현재의 상황을 보면,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있지만 주변국 관계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중 관계의 갈등이 심각해져서 한국이나 주변국들이 줄타기 하는 상황이 되고, 관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남북관계를 통해서 주변국을 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좀 더 전향적인 구상과 준비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석희** :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남북관계가 전향적으로 잘 될 때 주변국 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어떻게 진행시키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좋아하는 상황과 미국이 좋아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김근식** :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은 있지만, 확실한 묘안이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과 북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서로가 교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남북관계를 풀고 싶은 의지가 있

고, 김정은도 풀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16일 발표한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6월 30일 발표한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이 비슷합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 정치군사적인 회담을 하자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드레스덴 선언과 같은 사회경제 분야부터 하자는 것이죠. 민족동질성 회복 문제와 인도적 문제, 경제공동체 문제와 같은 부분부터 하자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범하게 북한이 요구하는 정치군사적 어젠다에 대한 회답에 응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회답에 북한이 응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제의를 맞바꾸는 그런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능주의적 접근과 정치군사적 접근을 서로 교환하는 결단을 내리면 남북관계가 의외로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겠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대화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정상외교 뒷받침하는 다양한 채널의 실무외교 확대해야

▣ **김용호(사회)** :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북한의 국제화' 를 언급하셨고, 주변국과의 관계와도 커다란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통일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통일외교에 관해서도 말씀을 나눠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일외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외교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창수 : 저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국내적인 준비가 중요하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하는 통일 시나리오, 그리고 통일준비 전략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주변국을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즉, 큰 틀에서 통일의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하고, 그에 대한 우리 내부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일한국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신범식 : 박근혜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통일외교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정상외교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대륙 쪽으로 편중되었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다소 우려됩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한·러 정상회담, 그리고 EU와 독일 등 유럽국가와의 정상회담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대륙 국가들이죠.

또 한가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상외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외교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짚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실무외교와 더불어 관련국들과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조율하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 채널이 상시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략대화, 전략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채널

이 가동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상외교가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전체가 막혀버리는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의 한·일 관계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 **김근식** : 한마디로 한국의 외교가 이제는 G2시대의 시험대에 본격적으로 올라섰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운신이 굉장히 어렵고 전략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진영논리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실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의 상황에서 보듯이 미국은 한국에 대해 계속해서 기존의 이익들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한·미 사이의 틈새를 벌이려고 합니다.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 한·일 관계의 악화입니다. 중국이 잘 활용한 것이죠.



유엔은 지난 7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대북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안론 성명을 발표했다.

그래서 저는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오히려 한국이 틈새를 확보하고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면 중국에게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가 좋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한·미 관계가 대중관계에 있어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통일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창수 : 우리 외교가 시험대에 서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라든지 포퓰리즘(populism)이라든지,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는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동북아 질서에서 중국과 일본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민족주의를 앞세워 안보문제와 영토문제에 있어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다 보니 편 가르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있는 전략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 김용호(사회) : 통일의 비전과 전략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그것을 국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전파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정보화시대, 국제화시대가 되어서 정부의 외교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비롯한 민간이 나서서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아직도 어려운 과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정세가 더욱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의 동북아 질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많이 약화되고 있지만 미국의 패권질서가 장기적인 측면

에서 중국 주도의 패권질서로 바뀌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고, 미·중이라는 양대 슈퍼파워가 관리하는 협력적인 동북아 질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반대로 두 개의 슈퍼파워가 경쟁하는 질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동북아의 다자질서가 확립되거나 유럽연합과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래의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지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부상은 경제적 기회이지만 불확실성 내포하고 있어

▣ **김재천** :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심화되어도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안보이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중국의 부상은 엄청난 기회, 특히 경제적 기회이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너무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국제질서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룰(rule)에 근거를 둔 질서(rule-based order)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아직은 미국의 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와 자본주의(capitalism)로 대표되는 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대안은 없습니다.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응개념인 베이징 컨센서스 역시 컨텐츠는 실제로 아무 것도 없

중국에게는 한·미 관계가 중요하고, 또 미국에게는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이해 시켜야 합니다.

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보장해줄 수 있는 안보이익도 매우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관계를 위해 한·일 관계를 손절매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한·미 관계를 손상할 수 있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만 하더라도 중국과 같이 압박하는 모습보다는 인류보편적인 양심세력들과 공조하는 모습이 더 좋은 이유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심화해 가되, 한·미·일 안보협력은 공고히 해 나가야 합니다.

▣ **김근식** : 저는 미·중 사이에 세력전이가 될지 안될지가 논란이 되겠지만, 세력전이가 되더라도 기존 패권국이 만들어놓은 질서가 새로운 세력전이국가에 크게 나쁘지 않다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비서가 전술 로켓 발사훈련을 현지지도 했다고 지난 7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래서 신범식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동북아 질서가 중국에게 꼭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이 기존의 패권국과 새로운 패권국이 절충 가능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게는 한·미 관계가 중요하고, 또 미국에게는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문제가 될 것입니다.

동북아가 협력과 공동번영으로 가는데에는 북한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나서야 합니다. 북한 다루기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협력의 경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문제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고, 갈등의 씨앗이 만들어지고 커져서 충돌이 일어나면 동북아 질서는 견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우리가 얼마나 큰 입지를 가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미·중 사이에서 동북아의 미래를 낙관적인 상태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석희** : 저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따라 잡는다 해도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패권국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서구문명이 만들어 놓은 체제 속에서 약간의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개발하고 논리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리를 만들어 내고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운영의 묘를 더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에게 실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더 큰 실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방향을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 졌습니다. 한국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동안 우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해 가는 외교를 펼쳐왔는데, 이제는 전략적 모호성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국익에 따라서 우리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관련국가의 동의를 얻어 선제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양대 세력 사이에서 역할 확보할 논리 선점해야

▣ **진창수** : 저는 앞으로의 동북아 질서는 미국이 쇠퇴해 가면서도 미국의 헤게모니(hegemony) 시스템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중국의 부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한국이 서로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대해 가려는 과도기적인 모습이 지속될 것입니다.

즉, 세계질서 속에서의 구조적인 큰 틀은 미국의 헤게모니(hegemony)가 지속되고, 동북아 질서에 있어서는 중국의 부상을 견

제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자기 주도의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과도기적인 질서가 아마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외교전략은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전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5년 정도가 지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더 커지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심화되어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는 영원히 밝히지 못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범식** : 저도 미래질서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중국이 완전히 대체하게 되기까지는 성공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은 아시아와 유라시아에 집중적으로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3분의 2 정도가 되지요. 굉장한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한 패권을 가지지만 압도적인 패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질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역강대국과 협력하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미국은 동북아에 있어서는 중국, 유라시아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협력 또는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구도로 본다면, 동북아에서는 미·중이 대략 65~70%, 일본과 러시아, 남북한이 30~35%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중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상대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 도리어 30%밖에 되지 않는 지분이지만 일본과 러시아와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아시아 질서의 구축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개발하고 논리를 제시

하면서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리를 만들어 내고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김용호(사회)** :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처럼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평통과 자문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논리 개발 필요

▣ **신범식** :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등장을 예견하면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의 지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 자문위원을 두고 있는 민주평통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반도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이 논리를 전파하는 일, 그리고 여론을 조성하는 일, 그런 일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민주평통과 자문위원이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한석희** : 그동안 민주평통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왔고, 또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과 활동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의 통일외교가 너무 동북아시아에 집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동북아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만큼 이 기회에 한반도 통일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럽국가들은 한반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한반도 통일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민주평통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등 오세아니아지역, 또는 남미와 아프리카지역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또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역할을 민주평통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용호(사회)** :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통과 자문위원들이 민간 통일외교, 공공외교에 앞장서서 정부의 통일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야 합니다. 특히, 해외 자문위원의 활동이 많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거주국 사회에서의 통일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의 거주국 주류사회에서의 통일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6기 해외지역회의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개최됐다.(지난 6월 1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과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제기하신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을 정리하여 정책건의자료로, 그리고 자문위원들의 통일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일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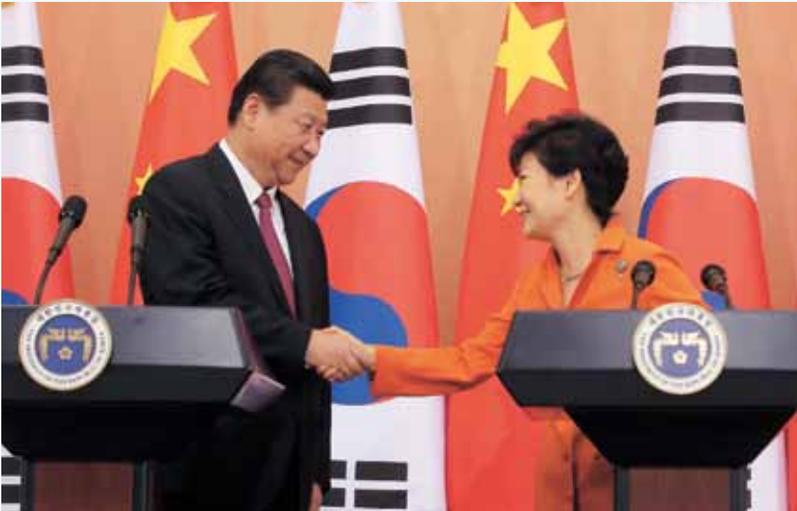
한·중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전문)

▣ 박근혜 대통령 발표문

먼저 시진핑 주석께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 하 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평리위안 여사께서도 함께 한국을 방문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 주석님과 저는 작년 초 취임 이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다섯 번 만났습니다. 회담을 거듭할수록 시 주석님과 의 신뢰가 더욱 깊 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람은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작년 제가 중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한 뒤 악수 하고 있다.

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두 정상은 새로운 20년을 내다보면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양국은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전략대화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지난 1년간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신설키로 합의한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등 3개의 전략대화 채널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포괄적·다층적인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소통의 외연을 더욱 넓혀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1.5트랙 대화체와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 간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을 새로이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경제협력 분야에서 시 주석님과 저는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및 세계 경제성장에도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간 호혜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 향후 역내 지역 경제통합을 촉진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 주석님의 방한 계기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국 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그리고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 투자자(RQFII) 자격 부여 등 양국 간 금융 인프라 구축에 큰 성과를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국민 간 거래가 보다 신속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과 재난 시 긴급구호와 지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식품 기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산 김치의 대중국 수출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양국은 평화로운 미래의 해양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 경계획정 공식 협상을 2015년부터 가동하기로 하였고, 양국 국민들의 관심사항인 서해 및 주변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양국은 금년 중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사업 등 19개 인문유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공공외교 포럼 개최, 녹색봉사단 사업 등 공공외교 협력도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양국은 국민체감적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에 체결되는 한·중 영사협정은 협상 개시 후 12년 만에 타결되는 것으로,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국민들이 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사증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과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2016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1천만명 시대를 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1,000명의 청소년 상호 방문 교류와 양국 간 유학생 규모 지속 확대 등 미래세대간의 소통의 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 주석님 방한을 계기로 한 쌍의 팬더를 한국에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한 쌍의 팬더는 작년에 한국에 온 파오기들과 함께 앞으로 양국 간 우호의 상징으로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여섯째, 양국은 공동으로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라는 범세계적 도전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중 기후변화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하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역내 원전 안전 보장을 위해 사건정보 통보체제 구축 등 실질 협력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시 주석님은 양국 공동의 당면 과제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과 경제개발 병진노선을 고집하면서 최근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핵실험 위협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님의 방한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인식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저와 시 주석님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와 안정 유지가 양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와 9.19 공동성명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양자 및 다자 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두 정상은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두 정상은 남북한 관계와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한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드레스덴 구상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님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정상은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시 주석님과 저는 오랜 친구(老朋友)로서 편안하면서도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중 양국이 새로운 20년을 향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여정에 있어 이번 시 주석님의 방한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발표문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회담을 가져 중·한 양자 간에, 또한 지역 및 국제 상생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 대하여 깊이 있게 의견 교환하였으며 많은 중요한 공통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세는 중·한 관계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발전을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여야 합니다.

방금 끝난 회담을 통하여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다음과 같은 공동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장기적인 공동 발전을 기본적인 목표로 세우고, 발전의 기회를 공유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전면적 협력 심화를 통하여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조율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를 함께 추진하는 동반자, 그리고 세계 번영을 촉진시키는 동반자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정치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을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양국 지도자는 지속적으로 밀접한 소통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 의회 및 정당간의 교류 협력 체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정식적으로 가동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는 경제통상 협력의 호혜 협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양국은 신에너지, 전자통신, 지능설비제조 등 전략적 유망산업을 함께 공동 발전하는 것을 격려하고, 금융 협력의 새로운 채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함께 노력해서 중·한 자유무역구역의 협상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2015년까지 양국 무역규모 3천억 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인문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양국은 중·한 인문교류공동위원회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중국과 한국 관광의 해 활동을 거행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사증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2015년부터 5년간 매년 100명의 상대국 청년지도자를 상호 초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또한 양국이 팬더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하는데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및 국제상호상의 협력을 심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측은 아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 하였습니다. 한국 측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에 관한 중국 측의 제안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도 깊이 있게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공통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안전 유지, 이는 6자 회담 참가국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고 관련 참가국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둘째, 회담 참가 사무국들이 2005년 9월 19일에 합의한 공동성명 및 관련 UN 안보리 결의 등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관련 당사국들은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여야 하고 양자 및 다자간에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여야 하고, 6자회담 틀 안에서의 각 측의 공동관심사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넷째,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인식을 모아 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측은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많은 불확정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국들은 정세를 타당하게 관리하는데 함께

나서야 합니다. 중국 측은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최종적인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중국과 한국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한 관계의 미래에 대하여 자신감, 특히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중·한 관계는 꼭 과거의 좋은 전통을 잘 계승하고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저는 확신합니다.

※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통역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지난 7월 3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무엇인지, 앞으로 한·중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고 우리는 변화하는 정세에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해 논의한 전문가 좌담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통일포커스 제7호

발행일 2014년 7월 31일
발행인 박찬봉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대변인실 02)2250-2265
제작처 이호기획 02)2274-1491

※ 이 자료집에 정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일 Focu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